

“나는 양, 예수님은 목자!!”

“집사님 양 같으세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립니다. 현대 이 인사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양처럼 착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은 양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약하시네요?라는 말입니다.

1. 양은

㉔초근시입니다 -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갑니다.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잘 잃습니다.

㉕ 양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갔던 길을 돌아오지 못 합니다.

㉖ 양은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㉗ 양은 더럽습니다. 사진을 보라. 6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털의 무게만 35kg이었다고 합니다. 털을 깎지 않았다면 무게에 눌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㉘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를 갖았기에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2.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릅니다. /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더러움을 씻어 낼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현대 여러분에게 목자가 누구입니까?

한 때 TV가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대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인터넷 세상에 누이시며 실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름신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쿠팡과 페이스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스마트폰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 많은 팔로워들이 내게 상을 베풀고 유튜브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 눈이 황홀해지나이다

나의 평생에 모든 앱이 나를 따르리니 스마트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적용) 제발 스마트폰을 내려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단현상처럼 힘들텐데... 그래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공항에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에도... 모두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4. 우리에게 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1-15절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 분만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